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6월 14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출 1:15-22, 마 16:26

제목 : 애국하는 신앙 · 영화로운 나라(2)
“번성하고 강해지는 백성”

말씀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16:26)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월의 목회 주제는 애국하는 신앙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신앙인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나라와 백성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애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애국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써 맨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국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 주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면서 겸손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 군으로 삼으셨으니 모든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잘 세우도록 기도할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쟁의 위험이나 경제적인 위험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 돌 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믿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빨리 사라지도록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북한 땅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은 계속 우리나라를 향하여 강성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국하는 신앙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의 설교 주제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복음 전도 즉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애국임을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월11일(목) 새벽기도 시 본당에서 묵상을 하는 데 갑자기 <생명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번 주 설교해야 한다는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날 새벽 5시경에 스마트 폰 노트에 떠오르는 대로 오늘 설교 흐름과 주제를 적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진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사진입니다.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지요?

경남 창녕에 사는 9세 A양이 지난 29일 4층 빌라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넘어가 학대받던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부모는 A양에게 하루

한 끼만 줬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A양을 4층 테라스 난간에 쇠사슬로 묶어놔습니다. 자물쇠로 잠갔다가 화장실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만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녀가 무슨 짐승입니까?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잠시 쇠사슬이 풀려 있던 A양은 그 사이에 테라스 옆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붕의 높이가 10m나 됩니다.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어른도 넘어가기가 힘들 정도이고 잘못해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A양에겐 부모가 사는 집이 이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 쓰고 탈출한 것입니다. 당시 탈출한 A양을 목격한 한 주민은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고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가하면 A양의 손끝에선 심한 물집이 발견됐습니다. A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계부가 "지문은 없애고 가라"며 프라이팬에 지진 자국입니다. 경찰에서 A양은 "엄마가 달궈진 쇠 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찔렀다. 엄마가 욕조에 머리를 감길 때 물에 머리를 박아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 기록과 본인 진술 등을 통해 친모가 과거 조현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넷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우울증의 증세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A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밝게 지내면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 소견에서 A양에겐 오래된 골절의 흔적, 영양 부족에 따른 심한 빈혈, 눈 부위의 욕안으로 확인되는 멍, 손과 발의 화상, 등에 난 상처 등 학대로 의심할 만한 상처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A양이 살아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지난 1일에는 9살 난 아들이 여행용 가방에서 심정 지 상태로 구조되었지만 결국 숨진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계모 C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낮12시쯤 A군을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대형 여행 가방에 가뒀습니다.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모자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중형 여행 가방에 감금했다가 심 정지 상태에서 구조는 되었으나 죽었습니다.

참 이러한 보도는 우리 마음에 강한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하면서 우리들을 삶을 슬프게 만듭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두 장) 집에서 기르는 개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기르는데 인간의 생명이 개보다 못합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즈음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심해지고 특히 어린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인다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살 난 아이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인 일, 신생아를 출산하고 열차 화장실에 방치하고 달아나 죽게 한 여대생 사건, 동거남이 외박했다고 핑계에 6개월 아이를 질식사시켜 죽인 일 등,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죽입니다.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마24:12입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나라를 부한 나라 강한 국가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엔 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6:9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생명을 좋게 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생명사랑에 대해서 지난 5월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한다(모든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에 자연생명에 대한 사랑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 다루겠습니다.

우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되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신체에 해를 가해서도 안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과 몸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의 몸도 사랑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짐에 바로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세웁니다. 포로들에게 계속 중한 짐을 주었습니다.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지쳐서 부부관계를 못해 자식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치면 지칠수록 후손들을 더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대자의 계획도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린 남자아이들이 탄생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를 죽여서 더 이상 종족이 번식되지 못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바로가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조산할 때 남자아이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그 누가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이름이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거역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생명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1:20-21입니다. "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생명을 살리며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를 백성을 그 집을 번성하고 흥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준 생명을 이렇게 묵숨까지 바치면서 지키는 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린 어린아이 가운데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

을 바로의 고통에서 해방하게 하는 결정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리는 일이 곧 내가 잘되고 번성하는 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말을 듣고 혼자 떠났습니다. 형들이 있다는 세겜을 가보니 형들은 도단으로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으로 오는 요셉을 보고 요셉에 대하여 시기와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찬 형들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온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형이 죽이지는 말자고 말합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37:18-22입니다.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던라."

결국은 요셉은 살았습니다. 후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후 그의 가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7년의 기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생명을 죽이는 일을 쉽게 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피 값을 찾기 때문입니다. 창 9:5-6입니다. "5.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나 9:7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기 형상대로 지은 생명을 사랑해야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강한 국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영화로운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독재국가와 독재자들의 마지막이 비참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은 생명이 사는 터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삶의 터전인 가정과 일터,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의 모습도 생명을 사랑하는 터전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사진입니다. (딸기밭 온도 사진)무슨 사진일까요? 다음 사진 두 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작년 1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겨울 딸기밭입니다. 딸기도 맛있게 싱싱하게 만들려면 그 밭의 분위기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로 출근하다가 모습을 보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아파트 벽을 새롭게 칠하면서 혹시 세워둔 자동차에 페인트 가루가 붙으면 문제가 발생하기에 비닐로 덮어씌운 것입니다. 고작 소모품인 자동차도 혹시 해가 될까봐 비닐로 덮어씌웠는데 또한 리고 인간이 먹고 나면 없어질 딸기도 잘 자라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인간의 생명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생명을 사랑하는 분위기로 그런 정신으로 모두 덮어 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왜 친생명적인 산업을 추구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인간의 삶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나라 민족 국민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일이 애국하는 일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백성은 정말 이일을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말 그대로 비정부 기구입니다. 정부의 간섭이 없이 시민이나 개인,

민간에 의해 조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단체입니다. 사회제도나 법의 그늘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곳에 관심을 보이자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입니다. 제3세계의 기아들을 돕는 수많은 단체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더 활발하게 잘 도와야 합니다. 그게 애국하는 일입니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우리에게도 영향이 옵니다.

작년 7월 22일 노회 남북한 통일위원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위원회 임원들이 하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그 관람하는 장소에 6. 25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UN 안보리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한 16개국 나라들에 관하여 전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진)

그 곳을 관람하면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한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시에 우방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가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고무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국가들을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애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 백성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6월은 나라를 사랑하는 달입니다. 위정자들과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애국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고통당하는 이웃 단체 민족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나누면 그 게 애국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백성이 많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영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해서 영화로운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